

# 세계 발효산업 중심에 선다

### 순창, 2021년까지 1047억원 투자 전통발효문화화산단 조성 '대규모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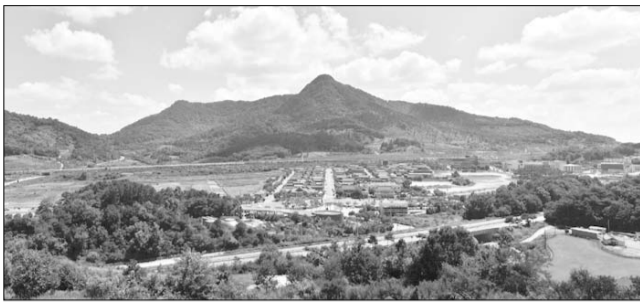
순창군이 장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여기에 관광 문화를 융합해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 집중 키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그림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아시아농생명 스마트밸리조성에 중심축을 이루면서 성공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도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조성 미생물 분야로 장내유용미생물은행구축, 고부가 미래성장형 발효효소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심에는 순창이 있다. 순창이 추진하는 한국전통발효문화화산단이라는 민속마을 주변 445,063㎡에 장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지원 시설과 관광 시설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장류산업을 이끌 성장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발효와 관련된 문화 먹거리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047억원을 투자한다는 대규모 청사진을 확정한 상태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등 발효 관련 기능이 강화돼 사업 규모가 커졌다. 관련예산의 국비확보 성공과 민간투자 MOU 체결, 부지매입 완료 등



순창군이 장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여기에 관광 문화를 융합해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 집중 키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이 착각 진행되면서 군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화 시설로 배양실, 품질관리실, 제품저장실 등을 갖춘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발효미생물 산업화용 생산시설과, 장류 및 절임원료농산물 저장창고, 기업체 마케팅을 지원하는 B2B 지원센터도 주목받는 산업화 시설이다.

관광분야는 더욱 풍성하다. 고추를 중심으로 한 100세 다년생 식물원, 농산물을 활용한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전통누룩체험관,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관광 객 유치에 앞장선다.

추억의 전통식품거리도 조성해 발효 관련 먹거리와도 연계한다. 발효테라피센터와 다목적 광장 등 휴식 기반 시설도 주목받는 시설 중 하나다.

여기에 짧은 시절 건강한 장내 유용 미생물을 보관했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식하는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등 순창군만이 해낼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들까지 더해진다.

황승주 군수는 "농업과 함께 순창의 새로운 발효산업은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핵심 축이 될 것이다"면서 "한국전통발효문화화산단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순창 발전의 새 전환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춘향골파프리카, 농산물생산단지 중 최고

### 농식품부 평가서 최우수단지 선정... 9500만원 인센티브 성과 올려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이 2018년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수출물류비의 10%인 9,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GT)가 지난 4월부터 전국 150개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대비 수출비중 및 전년 대비 수출비중 증가율, 단지규모, 공동선별 비중, 계약재배 수출비중, 자조급 조성 및 운영, 수출농가비율, 교육 및 회의참석, 안전성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단지 선정과 수출전문단지 운영을 위한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 춘향골 파프리카는 2001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운봉지역을 주산지 50농가에서 27.9ha를 재배해 연간 4천톤을 생산, 10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전북지역 총생산량의 43.5%, 전국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운봉농협에 전문 APC를 설립해 공동선별과 유통의 일원화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에 918톤을 수출하는 등 외국에서도 품질과 맛을 인정받는 등 남원시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로 성장해 거둬들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여름 작기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되는 지리산 고랭지 운봉

읍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편성, 첨단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이강조 원예허브과장은 "최적의 생산여건과 농가들의 표준화된 고급 생산기술을 접목해 맛과 향이 뛰어난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해 운봉농협 전문 APC를 중심으로 엄정한 선별과 국내의 체계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득작목 육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하수 오염 범인 '방치공' 찾아라

### 임실 청정지하수 시수... 원상복구·재활용방안 강구

임실군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 실패와 사용을 마친 후 매몰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으로서, 지하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지역 내 방치되어 있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중지된 관정찾기에 돌입한다.

군은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방치공의 대상은 임실군 전체에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군은 숨어있는 방수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 읍·면별로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시 군 인력으로 편성된 방치

공 조사팀반을 구성·운영하여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민홍보와 찾은 방치공 현장 확인 및 임시처리와 찾은 방치공 원상복구 및 수질 보조 관측망이나 급수정 등 재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하수오염이 예상되는 시급한 방치공은 조속히 원상복구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섭 과장은 "지하수로 개발된 후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방치공 찾기 사업을 전개해 청정지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참여와 신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 참웃산업 활성화 머리맞대

임실군이 지역 특화자물을 활용한 농업 선진화 정책에 주력하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잇따라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행정과 과수농가들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벤치마킹(경기도 이천)을 실시한 데 이어 26일에는 충남 보령에서 '임실·순창 웃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과 사업단, 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웃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단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임실 참웃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임실·순창 웃 발효식품가치창조사업은 전북도가 공모한 '2017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지원받게 되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5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참웃을 활용해 고부가 발효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순창군과 순잡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점검

순창군이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두팔을 걸었다.

군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 향후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이동차대 근절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군 점검반은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표준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승차시, 운행 중, 하차시 안전점검 숙지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 내 영유아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조했다.

군은 지난 6월 20일에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교육, 차량사고 예방교육, 자전거 보호장비 착용체험, 안전 인형극 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놀이와 체험이 결합된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군은 또 사건의 안전대책으로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를 실시 어린이집의 과실이 인한 사고발생을 근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여름철 가축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 및 현장지도 강화로 축사 폭염피해 방지에 나섰다.

### 임실군, 살인 무더위에 축사 피해 방지 팔 걷어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평년 보다 높아 가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 및 현장지도 강화로 축사 폭염피해 방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30~35°C의 고온이 12일간 지속되면 가축이 고온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 체중 증가율이 감소하고 발육·번식장애, 질병발생 등으로 심하면 폐사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여름철 폭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러 축사 내부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차광막 설치, 지붕 물 뿌리기, 열매이 시설, 환풍기 또는 송풍기, 안

개 분무 시설 등으로 환경온도를 낮추어 줘야하고 적절한 통풍 및 농장 안과 밖에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터민과 광물질을 사료에 섞어 먹여 면역력을 증진 시키고, 시원한 물과 질 좋은 사료의 급여 비율 및 횟수를 늘려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사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63-640-2792~4)이나, 지역 농업인 상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